

2017년 5월 26일,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홍행춘(여, 1929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제보자2: 이승정(여, 1930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- 줄거리: 옛날 호열제가 창궐하였을 때, 병자들이 잠에 든 것임에도 죽은 줄 알고 산채로 묻었다는 일화이다. 제보자 할머니의 작은 딸이 호열제에 걸렸는데, 잠에 빠진 줄 모르고 죽었다고 오해하여 땅에 묻고 돌아왔다. 후에 작은 딸이 할머니의 꿈에 나와 일흔다섯 살 난 사람이 원래 저승에 올 것이었는데, 자신이 대신 왔다고 서럽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.

[조사자] 옛날에 하도리에는 전염병들, 막 터는 병이나 뭐 이런 병들 었엇우과?

[제보자1] 아, 그런 쫓터는 병은 그거 병이 아이다, 우리도 막 헤나도 이제 호열제?든 거 사람 죽는 병을 헤도 그거는 달달달 떨어 험 건 그거 저 병 아이더라.

[조사자] 그럼 호열제?든 거는 어떻 헤그네…….

[제보자1] 호열제는 그냥 막 급허게 설세낭 막 우로 토하고 무시거 험 눈 히뜩히뜩 허멍 죽어부는 것이 호열제지. 경 허문 막 사람 못 덩이게 이제 주사 막 낫에게. 이제, 이제 그런 거 었다.

[조사자] 당이 막 썬영 호열자같은 게 못 들어 왔다는 그런 건 었우과?

[제보자2] 그추록은 못허지게.

[제보자1] 저, 그런 구신이 아니고 주사로 그만 낫부나네, 그런 독헌 병은 우리 세대엔 안 봤다. 우리 저 할망덜은 옛말 곤나

“막 죽언에, 채 죽지 안헌 거 물어부난 돌아누웠저.”

“그 아멩이나 강 묻언 잘 묻젠 가보난 영 돌아누웠어렌.” 허고.

[조사자] 돌아누웠어렌?

[제보자1] 살안에 파들락파들락헌 거 아니가게. 곧 줌 잇인 걸 그냥 죽엇젠 강 묻으난, 잘 묻젠 이젠 강 판 보난 영 돌아누워비엿어렌게.

[조사자] 겐 그대로 죽어불언마씨?

[제보자1] 게, 죽주 어떻게. 게난 막 을큰험 완 을멍.

[제보자2] 그때게 호열제라부난 이녁대로 어떻 얹어사 갓인디, 지게사 져인디

[제보자1] 우리 할마님이 열다섯에 이제 셋년이 죽으난,

“죽엇저, 죽엇저.”

헨 강 묻으난. 그날 즈낙 꿈에

“일흔다섯 평이 사람 오렌 헨 거 나가난 오죽 험디가, 오죽 험디가.”

헤렌. 산 거 막 묻엇?렌 막 울더라게, 아이고.

[조사자] 꿈에 어떻 헛덴마씨?

[제보자1] 꿈에

“일흔다섯 살 오렌 헨디, 나가가난 무사 완딘 막 욱헤렌.”

일흔다섯 난 사람을 돌아갈 건디 열다섯 난 아일 돌아가난

“무사 완디?”

막 행. 저 돌아간 사람이 핫단다, 옛날에. 그냥 죽엇젠 헨. 천 곳엉 덩기당 간
묻언 잘 묻젠 보민.

“영 헛어라, 영 헛어라.” 막 곧는 거 들어낫저게.

[제보자2] 거 오죽 못전뎃우과, 죽젠 허난.

- 핵심어 : 호열제, 독한 병, 줌, 산 거, 산 송장, 생매장, 시체, 꿈